

“군민과 이뤄낸 변화·성장의 한 해” 민선8기 공약사업 이행률 72%

순창군, 2024년 종무식 갖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추모·표창 시상 등 진행

순창군은 지난달 31일 향토회관에서 최영일 군수를 비롯한 400여 명의 공직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종무식을 개최했다. 이날 종무식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으로 시작돼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했다. 이어진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한 공무원과 민간인 89명에 대한 표창이 이뤄졌다. 최영일 군수는 송년사를 통해 “2024년은 국내외 정세가 얽히며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격변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순창은 군민들과 함께 많은 변화와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4년 순창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72억원을 비롯해 총 109개 사업에 1,594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하며 지역발전의 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과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인 SA 등급을 획득하고,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요 성과로는 △이동정책 시행계획 최우수기관 선정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선정 △기초생활보장분야 평가 우수기관 선정 등이 있다. 뿐만 아니라, 군은 전국 최초로 도입



순창군은 지난달 31일 향토회관에서 최영일 군수를 비롯한 400여 명의 공직자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종무식을 개최했다.

한 아동행복수당을 통해 관내 92%의 아동이 혜택을 받았으며, 노인일자리도 전년 대비 1,000여개가 늘어난 2,933개를 확보하는 등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복지정책을 실현했다. 특히, 순창형 전입마을 500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청년근로자 종가 통장 지원 확대, 농촌유학을 통한 51명의 유학생 유치 등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군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상하수도 요금 할인 확대

임실군이 상하수도 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바뀐 상하수도 요금 관련 주요 내용은 문자 고지 300원 할인, 다자녀 기준을 만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

으로 확대한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문자 고지 신청자를 확대하여 종이 고지서 발행을 줄여 종이 고지서 제작과 발송에 지출했던 예산을 절감하고 환경보호 및 탄소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군, ‘독감’ 유행 주의보 적극 홍보 나서

순창군 보건의료원은 최근 질병관리청이 독감 유행 주의보를 발령함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과 영유아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예방접종과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관내 독감 환자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12월 3주 차에 40여 명으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독감은 고열, 마른기침, 인후통, 근육

통 등의 전형적인 증상을 동반하며, 특히 노인, 영유아, 만성질환자 등 면역력이 취약한 고위험군의 경우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위생 관리와 생활 속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바른 기침 예절 지키기, 30초 이상 손 씻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

다. 또한, 인구 감소 시대에 출산 장려 분위기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군민들의 호응도 좋을 거라 예상된다. 심 민 군수는 “문자 고지 신청을 통해 요금 할인도 받고, 다자녀 기준 완화로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을 만지지 않기, 실내 환기 자주하기 등 기본적인 예방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독감 감염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예방접종과 개인위생 관리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독감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특히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 영유아보육시설, 병원, 요양시설 등은 더욱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남원시, 추진상황 보고회 가져

남원시는 지난달 30일, 시청 회의실에서 민선8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민선8기가 후반기로 접어드는 2025년을 앞두고 현재까지의 공약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추진계획을 공유하며,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방향 논의를 위해 마련했다. 간담회는 최경식 시장(사진)의 주재로 국(소)장, 공약사업 부서장이 참석,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으로 새롭게 도약하는 경제도시 △일하고 싶은 창조도시 △함께하는 나눔복지 밝은 미래교육 △열린 소통으로 화합하는 혁신행정 등 6대 분야 41개 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이 이루어졌다. 현재 공약사업 이행률은 72%이며 △생활스포츠 활성화 △농축산물 등 수



출지원 확대 △사회안전망 복지서비스 확대 등 18개 사업은 이미 완료하였고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 조성 △청국 전용 극장 조성 및 공연 확대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100억원 조성 등 4개 사업은 이행률 80%이었다. 남원시는 보고회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별 당면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해 효과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한편, 내년도 공약사업 추진 로드맵을 구체화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남원의 성장과 시민 행복을 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질 예정이다. 특히, 민선8기 공약사업 중 △미래신성장 분야의 드론·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존산업 △천연물바이오 산업 활용 농생명바이오 산업 육성 △국립스포츠 훈련원 건립 스포츠 메카 조성 △문화예술 및 충훈과 역사의 테마조성 등 12대 핵심 사업은 행정력을 더욱 집중해 추진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최경식 시장은 “민선 8기는 이제 반환점을 지나 후반기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내년에는 모든 공약사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민과 약속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에 지난 연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웃돕기 위문품 기탁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임실군, 연말연시 따뜻한 기탁 이어져

임실군에 지난 연말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이웃돕기 위문품 기탁행렬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유)다주에너지(대표 강장훈)는 임실군에 매년 지속적으로 기부를 해오고 있으며,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백미(10kg) 200포를 기탁했다. 강장훈 대표는 “추워지는 날씨에 소외 계층에게 작은 보탬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꾸준히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실치즈농협(조합장 이창식)은 관내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층을 위한 이웃돕기 상품 3백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 했다. 이창식 조합장은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쥬림마 농업회사법인(대표 한서리)는 백미(10kg) 100포를 관내 저소득 취약계층에 도움을 주기 위해 기탁했다. 한서리 대표는 “겨울 추위가 더욱 매섭게 느껴질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전달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 상품 기탁으로 지역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심 민 군수는 “경기 불황으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도 따뜻한 손길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전달받은 위문품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소중히 전달하고, 모두가 보여준 따뜻한 마음은 임실군을 더욱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전면 무료화

남원시가 춘향테마파크를 2025년 1월 1일부터 입장료 전면 무료화로 시행한다. 이는 민선8기 문화관광분야 핵심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의 테마조성·합파우아트밸리(파빌리온)조성사업’ 일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남원시는 2025년 올해 사업의 첫 플랜으로 춘향테마파크를 남원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공연형 랜드마크로 거듭나기 위해 입장료 전면 무료화에 나섰다. 춘향테마파크 운영 시간은 연중무휴이며, 하절기(4월~10월) 오전 9시~오후 10시까지, 동절기(11월~3월)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박준기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이번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무료화를 시작으로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남원의 랜드마크이자 공원형 테마파크로 나아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2024년 자활사업 참여자 워크숍 개최

남원시는 최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자활사업 참여자 및 자활기회 구성원 등 약 6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자활사업 참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4년 남원지역자활센터에서 진행한 사업결과 보고, 2025년 자활사업추진방향 설명 등 정보 공유의 시간을 가졌으며, 우수 참여자 표창을 통해 참여자들이 서로를 응원하고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시는 자활사업단으로 달구벌베이글 베이커리카페, 베트남골목식당(쌀국수), 싸다감밥, 매머드 카페 등을 운영하고 있다. 임춘근 남원지역자활센터장은 “2025년에도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N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향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달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

